

엄마의 고독1)

글: 오자와 마키코

번역: 박 동섭(dongspark@silla.ac.kr)

새의 새끼 키우기

정원 한 가운데 큰 목련나무가 잎을 펼치고 있다. 30년 전 쯤에 초등학교생이었던 아들들이 근처 숲에서 묘목을 뽑아 와서, 당시 아직 한산했던 뜰에 심었던 나무다. 그것이 어느 생가 이층에 닿는 높이로 자라나서 이른 봄에는 얼은 선홍색을 띤 흰 꽃을 피우고, 여름에는 그늘을 만들어 준다.

그 나무의 가지 끝에 올해 물까지 암수가 새끼를 키우기 시작하였다. 이 땅에 산지 30년 이래 처음 있는 일이다.

집에서 뜰로 통하는(나가는) 유리문으로부터 불과 몇 걸음 밖에 되지 않는 곳에서 게다가 뜰과 이어진 이웃집에서는 매일 아이들이 무리를 지어서 놀고 있는데...

요즘 세상에 새도 어지간히 주택난을 겪는 것일까? 아니면 까마귀가 늘어난 근처의 숲보다 사람 사는 곳이 안전하다고 생각한 걸까? 라고 가족과 이웃 사람들과 어디까지나 인간의 관점에 터해서 멋대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사람 눈을 피해서 잘 지은 가지 끝의 둥지를 올려다 본다.

암수 두 마리가 교대로 알을 품은 지 수주일이 지나고 3마리의 새끼가 태어났다. 둥지에서 새끼들이 벌리는 빨간 주둥이가 눈에 띈다.

부모새는 교대로 바쁘게 먹이를 물어 나른다. 알을 품을 때에는 주의 깊게 둥지를 왔다 갔다 했었는데 그런 모양새는 이제는 보기 힘들게 되어 버렸다. 사람 눈을 의식하지 않는 새끼 키우기의 바쁨은 인간과 별반 다르지 않은 풍경이다.

사람의 경우라면 흐트러진 머리를 만질 새도 없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는 형국일 것이다. 그 모습을 넋을 잃고 보다 보니 해야 할 일을 잊어버리기 일쑤여서 이것저것 일이 쌓인다.

나를 더욱 놀라게 한 것은 새끼 탄생과 동시에 많은 동료새들이 모여 든 사실이다.

1) 이 에세이는 『심리학은 아이들 편인가?』(오자와 마키코 저/박동섭 역/서현사)의 저자인 오자와 마키코 선생의 남편 小沢 俊夫(오자와 토시오) 선생이 연구소장으로 있는 『오자와 옛날 이야기 연구소』가 1년에 4번 내고 있는 계간지(아이와 옛날 이야기: Children and Folktales) 45화(2010년 가을)에 실린 내용을 완역한 것임. 저자인 오자와 마키코 선생의 ‘아이 키우기’를 보는 시각의 남다름을 느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녀의 시각에는 반드시 ‘사회’가 자리 잡고 있고 ‘관계’의 중요성을 엿볼 수 있습니다.